

# 저 겨울나무처럼 늘 준비하는 지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형인이 바로 그 역사에 유능한 주인공입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줄기차게 노력하여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전의 성과를 올려주길 바랍니다.

겨울나무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매섭고 세찬 북풍에도 제 자리를 지키며 계절마다 나뭇대로 양분을 저장합니다. 한편 부족하지만 필요한 양만큼 햇빛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수액을 순환하여 뿌리를 튼실하게 하고 가지에 곧은 힘살을 뻗어 다음 파릇한 봄을 기약합니다. 어쩌면 추운 겨울밤을 지새며 화창한 수목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고 꿈꾸는지 모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인형인 여러분도 미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항상 준비하면서 반듯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무작정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성공이었다면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모양은 커 보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며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독서를 통한 지혜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현재 잠시 오염되어 있는 것인지 완전히 오염되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류 공동의 정신적 자산이 되는 저작물이라 합니다.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책이라 함은 남다른 체험의 정제와 깊은 사념의 결실을 통해 태어납니다. 여러분 시기는 스스로 삶과 학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닦는 단계에 있으므로 특히 창조적 과업을 위한 사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양이란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면서 지적·오감·감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인간성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적으로 계몽되고 윤리적으로 견전해지고 영혼으로는 독실하고 경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인간 성숙의 종국적 지표이며 우리 교육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이제 인형인은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교양인이 되도록 저 겨울나무처럼 늘 준비하는 자세로 자신의 주어진 조건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고 구현하려는 체계적인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 과학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체득하고 폭넓은 사물 이해의 방식을 얻도록 앞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이사장 이강희

